

Focus 2 최근 한중간 교역동향 및 특징

□ 최근 한중간의 교역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2005년 처음으로 1,000억 달러 돌파

— 중국의 대한국 교역액은 평균 증가율(32%)을 4%p 정도 웃돌아 여타 국가에 비해 교역관계가 더욱 긴밀해짐

□ 이에 따라 중국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나 그 템포가 둔화되고 있음

—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승은 2003년 이후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투자설비와 가공무역 증가에 기인

<최근 중국의 교역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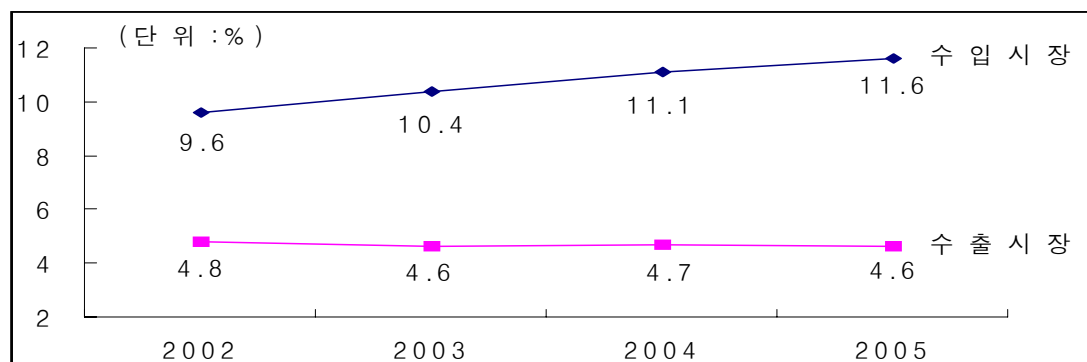
(단위 : 억 달러,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중국의 수출	대세계	3,256 (22.1)	4,384 (34.5)	5,934 (35.4)	7,620 (28.4)
	대한국	156 (23.6)	201 (29.6)	278 (38.3)	351 (26.2)
중국의 수입	대세계	2,952 (21.1)	4,128 (39.9)	5,613 (36.0)	6,601 (17.6)
	대한국	286 (22.2)	432 (51.0)	623 (44.0)	768 (23.4)

주 : ()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 중국 상무부, 해관

<중국의 전체 수출입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



자료 : 중국해관

□ 한·중간 교역액은 여타 국가와 달리 가공무역(전자와 IT 등 첨단분야)이 주도

- 한중 교역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의 48.5%에서 2005년에는 53%까지 증가함
- 최근 3년간 일반무역(중국의 대한국 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34.2%이나 가공무역은 43.9%에 달함

<한·중간 무역방식 추이>

(단위 : 억 달러, %)

	무역방식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중국의 대한국 수출	총 액	155.1 (100)	201.0 (100)	278.2 (100)	351.1 (100)
	일반무역	85.6 (55.2)	108.6 (54.0)	140.9 (50.6)	186.6 (53.1)
	가공무역	69.5 (44.8)	92.5 (46.0)	137.3 (49.4)	164.5 (46.9)
중국의 대한국 수입	총 액	285.8 (100)	431.6 (100)	622.5 (100)	768.2 (100)
	일반무역	129.8 (45.4)	206.9 (47.9)	274.5 (44.0)	314.0 (40.9)
	가공무역	144.4 (50.5)	207.4 (48.0)	320.3 (51.5)	428.9 (55.8)
	투자설비	11.6 (4.1)	17.4 (4.1)	27.9 (4.5)	25.3 (3.3)

주 : ()안은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중국해관

□ 가공무역 중 대한국 수입비중은 가공용 원부자재 조달로 그 비율이 높으나 수출은 주로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제3국을 겨냥

- 중국의 대한국 수입 중 가공무역 비중이 56%인 반면, 수출은 47%에 불과하여 그 편차가 10%에 근접함

□ 2005년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액이 하락세로 반전됨에 따라 투자용 설비수입도 같은 추세를 보임

- 2005년도 투자용 설비수입(중국기준)액이 전년대비 9.3% 감소한 25.3억 달러를 기록

□ 한·중간 무역구조에서 가공무역(가공무역 + 투자용 설비)과 관련된 중국의 대한민국 무역수지 적자액이 급증하는 추세

- 최근 3년간 가공무역 적자액이 3배 이상 증가하여, 2005년에는 전체 무역수지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육박

<중국의 대한민국 가공무역 수지>

(단위 : 억 달러)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대한국 가공무역 수입(A)	156.0	224.8	348.2	454.2
대한국 가공무역 수출(B)	69.5	92.5	137.3	164.5
가공무역 수지(C=B-A)	-86.5	-132.3	-210.9	-289.7
비율(C/총 무역수지)	66.1%	57.3%	61.3%	69.5%

주 : 가공무역 수입(A)에는 투자용 설비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 중국해관

□ 따라서, 중국의 대한민국 무역 역조문제는 중국시장을 교란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경제발전(기술이전 등)은 물론, 고용증대를 유발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매우 강함

□ 한중간 무역 및 산업협력 협상 시 양국간 무역역조 문제보다는 첨단 분야에서의 분업적 가공무역구조를 정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논의되어야 함

- 첨단 분야에 대한 법인세율(15%선) 유지문제 등 가공무역을 지원하는 정책적 배려 필요
- 한국 기준으로도 가공무역액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시스템 개선 필요